



닥나무 / *Broussonetia kazinoki* Siebold

구분	설명
생물분류	식물
속국명	닥나무속
과국명	뽕나무과

과명	Moraceae
일반특징	<p>요약설명 : 뽕나무과 낙엽 활엽 관목으로 충청도를 기준으로 한 남쪽 지역과 전라도, 경상도 등 전국의 해발 100~700m인 곳에서 자란다. 중국과 일본에서도 볼 수 있다.</p> <p>분포지역 : 중국, 일본; 충청남북도 이남, 전라남북도, 경상남북도등 전국의 표고 100~700m에 자생.</p> <p>형태 : 낙엽 활엽 관목.</p> <p>크기 : 높이 3m.</p> <p>꽃색 : 갈색, 백색</p> <p>개화기 : 6월, 5월</p> <p>잎은 어긋나며 달걀 모양 또는 달걀 같은 타원모양이다. 또한 긴 점첨두고 원저 또는 심장과 비슷한 모양이다. 끝은 날카롭고 간혹 깊이 갈라진 것도 있으며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톱니가 있다. 어린 나무에는 2~3개의 결각이 지는 것도 있다. 겉면은 거칠고 뒷면은 처음에 털이 있다. 잎자루는 꼬부라진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진다.</p> <p>꽃은 5~6월에 잎과 함께 피고, 암꽃과 수꽃이 한 그루에 달린다. 수꽃차례는 새가지 밑부분에 달리며 타원 모양이다. 암꽃차례는 윗부분의 잎겨드랑이에서 나오며 둥근 모양이다. 꽃자루는 잎자루와 길이가 거의 같다. 수꽃은 꽃덮이조각과 수술이 각각 4개이다. 암꽃은 끝이 2~4개로 갈라진 통모양 꽃덮이가 있으며, 대가 있는 씨방에 실처럼 생긴 암술대가 있다. 핵과는 기울어진 공모양이고 여러개의 열매가 뽕뽕이 모여 있는 것은 공모양이다. 8월 말~10월에 익는다. 겉열매껍질은 열매자루와 더불어 굽어지며 빨간색으로 익으므로 딸기와 비슷하다. 안쪽열매껍질에는 알갱이 모양의 돌기가 있다. 열매는 한의학에서는 저실자()라는 이름으로 부른다. 줄기의 높이는 3m에 이른다. 어린 가지는 손으로 꺾을 수 없을 정도로 유연하며 갈색이고 짧은 털이 있으나 곧 없어진다. 나무껍질은 매우 질기고 회갈색이다. 줄기가 훼손되면 다시 새로운 줄기를 만들어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새싹이 많이 나타난다.</p> <p>산기슭의 해가 드는 쪽, 밭둑에 난다. 유기물이 많고 진흙이 적게 섞인 보드라운 흙이 적합하다. 햇빛을 좋아하는 나무이고, 추위에도 잘 견디므로 중부 내륙지방에서도 잘 자란다. 씨앗을 뿌리거나 꺾꽂이, 포기나누기 등을 하여 번식시킨다. 닳나무가 자라는 충청북도 보령군 오천면 외연도의 상록수림은 천연기념물 제136호로 지정되어 있다. 닳나무 외에도 이 숲에는 후박나무, 식나무, 보리밥나무, 동백나무, 마삭나무, 먼나무, 산초나무, 자귀나무, 딱총나무, 푸조나무, 산뽕나무, 새비나무, 화살나무, 쥐똥나무, 사위절뽕, 칙, 왕머루등이 자라고 있다.</p>